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고사 (인문 사회) 연습문제 3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십시오.

제시문 <가>

중(中)이란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며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음이다. 군자는 중용(中庸)에 따라 행동하고 소인은 중용에 반(反)하여 행동한다. 군자의 중용이란 군자의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때에 따라 중(中)에 맞추어 행동함이다. 소인이 중용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소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함이다. 군자는 자신의 현재 처지에 따라 행하고 그 밖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부귀한 처지에 있다면 부귀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가난하고 천한 처지에 있다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오랑캐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오랑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환난에 처해 있다면 환난에 처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군자는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위자리에 있을 때에는 아랫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아랫자리에 있을 때에는 위사람에게 매달리지 아니한다.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면 원망이 없게 될 것이니, 위로는 하늘을 원망치 않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편안하게 처신하면서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위험한 것을 행하면서 요행을 바란다. 문왕과 무왕의 정치가 보여주었듯이, 걸맞은 사람이 있다면 그 정치가 흥성하게 될 것이고 걸맞은 사람이 없다면 그 정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무릇 정치는 갈대와 같다. 정치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중용의 도리는 지극(至極)하다! 백성들 가운데 중용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도가 행하여지지 못하는 이유를 나는 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지나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가 밝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안다. 어진 사람은 지나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 있고 벼슬과 봉록을 사양할 수 있으며 날카로운 칼날도 밟을 수 있지만, 중용의 도리는 쉽게 실천할 수 없다.

제시문 <나>

"All things in moderation\*," said the Greeks. No one, however, would deny that originality\* is a valuable element in human history. It is always necessary in this world to discover new truths and point out that the old truth is no longer true, to create new practices\*, to set examples of more enlightened\* acts, better tastes and new senses. Unless you believe that existing methods and practices are perfect, you cannot deny that these people are necessary. Not everyone has the same ability to make these contributions.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can improve existing customs to some extent with their own attempts, given the human race\* as a whole. But this minority is the salt of the world\*. Without them, our world would become a pool of rotting water. These are the people who introduce good things that didn't exist before, and keep them alive. If there is nothing more to be done in the world, one may think that human intelligence is unnecessary. That's why people who follow the old practice forget why it was done and follow it like a cow. No matter how good a belief or practice it is, it can quickly





degenerate into a mechanical one. If there are not always people who have new originality and prevent them from becoming conventional, the beliefs and practices will not survive even a small shock, and civilization will disappear as in the Byzantine Empire.

Moderation is the average person\* of another name. And as always, genius is very few. For genius to exist, there must be soil for them to grow. Genius can only live in a free atmosphere\*. Genius is more individual than others because it is a genius. Genius is difficult to adapt to some of the limited types that society presents, and if they try to do so, they will feel more pressure than others. If the geniuses agree to act timidly and adapt to the compulsory framework\*, so that their talents are suppressed, society will benefit little from them.

- \* moderation :中庸
- \* originality : 독창성
- \* practices : 관행
- \* enlightened : 계몽된
- \* the human race : 인류
- \* salt of the world : 세상의 소금
- \* average person : 범인(평범한 사람 / 보통 사람)
- \* free atmosphere : 자유로운 분위기
- \* compulsory framework : 강압적 틀

**제시문 <다>**

우리는 이제 대다수의 국가와 사람들에게 최선의 정치질서와 생활방식이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우수성이나 예외적인 재능과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는 교육 수준 또는 이상적인 상태를 성취하는 정치질서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생활과 대다수의 국가가 향유할 수 있는 종류의 정치질서에만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 중략 ...]

우리가 <윤리학>에서 나온 언명들, 곧 (1) 진실로 행복한 생활이란 모든 장애로부터 벗어난 선의 생활이며, (2) 선이란 중용에 있는 것이라는 언명들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최선의 생활방식은 중용에, 즉 각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중용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나아가 시민들이 좋은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쁜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기준들은 정치질서를 평가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질서란 시민들의 생활방식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에는 세 개의 계급이 있다. 아주 부유한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계급 [... 중략 ...]

국가는 가능한 한 평등하며 동등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되고자 한다. 다른 어떤 계급보다 중간계급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중간계급에 기초를 두는 국가가 최선의 질서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중간계급이야말로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간계급은 다른 어떤 계급보다도 안전하다. [... 중략 ...]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도 않고 부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물건을 탐내지도 않는다. 또한 부자들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반(反)하여 음모를 꾸미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한다. 포킬리데스(Phokylides)\*의 소망은 옳았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점이 많다.  
나도 국가의 중간계급이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논의한 것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분명해진다. 첫째, 최선의 형태를 가진 정치사회는 권력이 중간계급의 손에 있는 사회이며, 둘째, 중간계급의 규모가 큰 국가가 좋은 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간계급의 규모는 가능하다면 다른 두 계급을 합한 것보다 크거나, 아니면 적어도 두 계급 중 어느 하나보다는 커야 한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에는 중간계급이 어느 한쪽에 가세하여, 서로 적대하는 양 극단 중의 어느 하나가 국가를 지배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구성원들이 적절하고 알맞은 재산을 갖고 있다면, 이는 그 국가에 아주 좋은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민주주의 또는 단순한 과두정치 심지어 폭군정치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 중간계급이 지배하는 정치질서나 혹은 그와 유사한 정치질서로부터는 이러한 폭군정치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작다.

\* 포킬리데스(Phokylides) : 고대 그리스의 시인

**제시문 <라>**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통계적으로 대표하는 값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료의 분포상태를 하나의 수로 나타낼 때는 먼저 그 분포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성을 하나의 수로 나타내어 자료 전체를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 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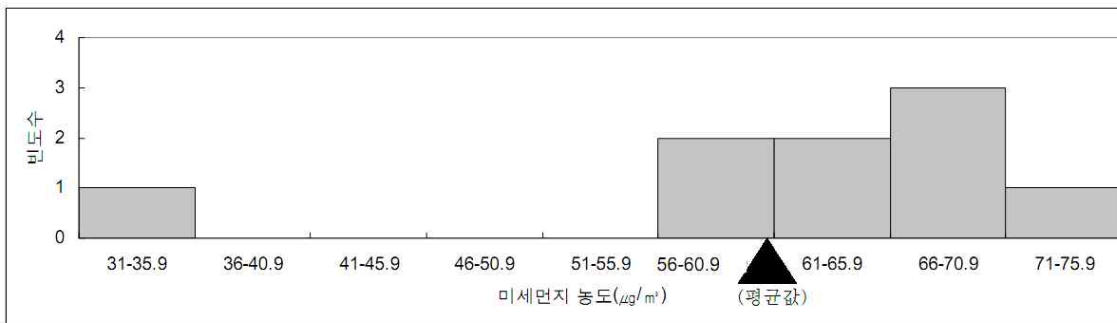
대표값의 종류로는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다. ‘평균값’ 은 모든 관측값을 다 합한 후에 그 합을 전체 개수로 나눈 값이다. ‘중앙값’ 은 모든 관측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다. ‘최빈값’ 은 주어진 관측값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다.

평균값은 극단적인 값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균형을 유지시키는 무게 중심에 비유되기도 한다. 극단적인 값들이 많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계산한 중앙값이 자료 전체의 속성을 보다 잘 대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료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빈값, 즉 자료의 값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이 대표값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세 가지 대표값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는 서울시 강북지역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하루 평균값을 아홉 개 구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는  $\mu\text{g}/\text{m}^3$  단위로 측정하며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하루 평균  $100\mu\text{g}/\text{m}^3$  이다.

	종로구	광진구	마포구	강서구	노원구	관악구	은평구	성북구	영등포구
미세먼지( $\mu\text{g}/\text{m}^3$ )	31	57	59	61	64	67	67	67	72

아홉 개 구역의 평균값은 모든 값들을 더하여 전체 개수(9)로 나눈 것으로, 약  $60.6 (\mu\text{g}/\text{m}^3)$  (=  $[31+57+59+61+64+67+67+67+72]/9$ )이다. 이때 중앙값은 자료를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므로  $64(\mu\text{g}/\text{m}^3)$ 가 된다. 최빈값은 가장 많이 관찰된 값이므로 세 번 관찰된  $67(\mu\text{g}/\text{m}^3)$ 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종로구는 다른 구역에 비해 미세 먼지의 농도가 낮다. 이 때문에 무게 중심으로 비유될 수 있는 평균값은 중앙값이나 최빈값에 비해 작아진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중용'의 의미와 그것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문제 2. 제시문 <라>에 설명된 대푯값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시문 <가>, <니>, <다>의 주장을 각각 논의하시오. (1,000자 내외, 50점)



**연습문제 예설**

**[가] : 개인의 상대적·유동적 실천원리로서의 중용**

- 인간의 바람직한 실천덕목으로서의 중용의 개념을 피력한다. 중용은 위치적·고정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라고 말한다. 즉, 인간은 행동을 함에 있어 중용의 도리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중용의 도리는 특정된 내용을 가지는 고정적인 행동원리가 아니라 주변관계의 변화에 상응하는 유동적인 행동원리이다. 따라서 지나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은 주변상황과의 관계속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행동이 무조건 지나치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폭력시위를 대할 때 극단적인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상황과의 고려속에서 오히려 중용의 도리를 따르는 행동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용의 개념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 탄핵 집회나 홍콩의 민주화 시위의 행동은 중용의 도리를 따르는 군자의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 중용이 선이라는 대전제의 부정**

- 문명 혹은 사회의 발전은 평범을 넘어서는 천재를 통해 이루어지며 천재의 출현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유로운 사회분위기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일반적인 중용의 개념을 부정한다. 다시말해 치우치지 않고 적절한 행동보다는 극단적이고 특이한 개성발현에 주목함으로써 천재의 탄생을 통해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천재나 대다수의 보통사람이나 중용의 도리보다는 다양한 가치를 적극추구하고 인정하는 방향을 사회발전을 위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국문번역)**

"모든 것에 중용을" 이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말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독창성이 인간사에서 가치 있는 요소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서 예전의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보다 계몽된 행위와 더 나은 취향과 새로운 감각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항상 필요하다. 기존의 방법과 관행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는 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공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시도로 기존의 관습을 어느 정도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전체로 볼 때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소수가 세상의 소금이다. 만약 이들이 없다면, 우리 세상은 고여 썩어가는 물 웅덩이가 되고 말 것이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만일 세상에 더 이상 이루어져야 할 것이 없다면, 인간의 지성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옛 관행을 답습하는 사람들은 왜 그것이 행해지게 됐는가를 망각하고 마치 소처럼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 아무리 좋은 신념이나 관행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기계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만약 항상 새로운 독창성을 가지고 신념과 관행이 인습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신념과 관행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버티지 못할 것이며, 비잔틴 제국에서와 같이 문명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중용은 또 다른 이름의 범인(보통사람)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천재는 극소수이다. 천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있어야 한다. 천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천재는 천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개성이 강하다. 천재들은 사회가 제시하는 제한된 몇 가지 유형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천재들이 소심하게 행동하여 강제적인 틀에 적응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재능이 억압되는 데 동의한다면, 사회는 그 천재들로부터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할 것이다.

**[다] : 바람직한 정치질서 구성을 위한 개인의 안정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원리로서의 중용**

- 사회의 바람직한 정치질서 구성원리로서 중용의 개념을 확장시킨다. 중용이 선이라는 전제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중용의 도리가 가장 잘 구현될 수 있는 사회구조를 제시한다. 중간계급의 규모가 큰 사회가 최선의 생활방식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근거는 중간계급의 안정성에 있다. 중간계급은 지나치거나 치우친 행동을 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용의 개념은 개인의 윤리적이고 목욕적인 생활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를 통해 사회의 구조가 중간계급에 클수록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처럼 (다)에서 중용은 보다 명확한 실체를 가진 개념으로 나타난다.



**[라] : 자료분석에 있어 집단의 대푯값이 갖는 중용의 의미와 한계**

- 중용이라는 개념이 통계상의 자료분석에 있어 집단의 속성을 간결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대푯값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양적인 개념으로서의 중용 혹은 중간이 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용개념의 기능상 활용이 <표>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등은 집단의 속성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왜곡된 속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제시문 종합]**

- 모든 제시문은 중용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제시문이 '중용'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가)는 중용이 개인의 바람직한 행동원리이며, 선이라는 입장이고, 내용은 상대적, 유동적이라고 이야기한다.
- (다)는 역시 중용이 선이며 바람직한 행동원리라고 보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가)와 달리 안정적, 윤리적 성격을 띤다. 그리고 그러한 중용의 개념이 최선의 정치질서로서 중간계급의 규모가 큰 사회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나)는 개인의 행동원리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용의 개념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 (라)는 중용 개념이 갖는 기능적 의미는 인정하지만 그 한계 역시 드러낸다.

결국 모든 제시문을 종합하면서 자신만의 중용의 개념을 확립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제시문들의 중용 개념에 대한 상충지점에 대해 판단을 내리면서 논지를 정리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드러난 쟁점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우선, 중용은 선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에 답하려면 중용의 개념을 무엇인가?에 답해야 한다. 중용의 개념이 확정되고 선인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이러한 중용 개념이 바람직한 사회구성의 방향을 결정하는가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중용이라는 가치가 갖는 한계는 없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3자 비교**

- 이 논제에서 중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 문제가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힌트가 논제에 제시되면 위에 지적했듯이 '중용'이라는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제시문들에서 구체화되었고, 그래서 중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보여줄 지를 고민해야 한다.
- 비교하라는 논제,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야 함. 위의 제시문 분석에서 보았듯이 (가)와 (다)의 공통점은 중용이 개인의 바람직한 행동원리라는 점이다. (가)에서는 군자의 도리로 제시되어 있고, (다)에서는 개인의 생활방식으로 중용이 선이라는 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차이점은 중용의 내용에 있다. (가)는 중용의 내용으로 상대적·유동적 행동원리임을 들고 있는데 반해, (다)는 중용이 선인 이유가 안정적이고 윤리적이 중간계급의 성향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단, 조심할 점은 (가)의 중용의 개념과 (다)의 중간계급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논제는 분명 중용의 의미를 비교하라고 했다. (다)에서는 중간계급의 실천원리로서 중용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중간자체가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 (나)는 중용이 개인의 실천원리나 사회발전의 덕목으로 제시되는 것에 반대한다. 이 점에서 (가), (다)와 상반된 입장에 서 있다. 3자 비교의 논제에는 각각 평가함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가)에서는 개인의 실천원리로서 중용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다)에서는 중용의 덕목이 사회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좀 더 입체적인 평가가 될 것이다.
- (나)입장에서는 천재가 사회를 이끌고 보통사람들은 천재가 나타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천재는 중용, 즉 지나치지 않고, 상황을 고려한 행동원리보다는 보다 극단적이고 강한 개성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천재의 행동의 방향은 적절한 수준에서의 안주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실험 등이 더 의미 있는 행동원리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에서의 중용의 주장은 천재가 나타날 수 없는 사회를 만들므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보통사람들도 지나친 것을 배제한다면 천재가 나타날 환경을 조성할 수 없게 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극단적인 모험을 증명해야만 천재가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통사람들의 행동원리도 다양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지어질 수 밖에 없다.

- (다)를 보면 중간계급의 안정성으로 인해 중간계급의 규모가 큰 사회가 최선의 사회조직, 정치질서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 혹은 문명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도전이나 다양성의 인정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발전적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예시 답안]

제시문 (가)는 중용을 군자의 도리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중용이란 중심을 갖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자신의 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문 (다)에선 중용을 나라를 다스리는 최선의 방법이라 해석하고 있다. 중용이란 행복한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여기서선 중간계층을 중용의 핵심요소로 보고 그 규모가 커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와 (다)의 차이점으로는 우선 중용의 대상을 정하는 것에 있다.

(가)는 군자가 중용의 대상으로 그가 하는 행동이 중용이며 소인과는 다른 존재인 것이다. 반면에 (다)는 중간계층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재산, 지위, 같은 측면에서 중간정도가 가장 좋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용의 가능성에 대한 차이가 있다.

(가)는 중용의 도리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용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며 여타의 선을 추구하는 행동들 보다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에 (다)는 중용이란 최선의 생활방식으로써 개인이 실천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간계급에 속해있는 사람들 모두가 중용을 실천하기에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와 (다)의 공통점으로는 중용이 정치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 있다. (가)는 군자의 도리를 지켜낸 사람의 의해 정치가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어 좌지우지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는 중간계층의 규모가 큰 중용의 사회일 때 폭군정치라던지 과두정치, 극단적 민주주의와 같은 폐해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즉, 중용은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요소로써 사회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나)는 천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에게 있어 천재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극소수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소수의 중용의 도를 갖춘 군자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 (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천재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재능과 타인의 모범이 되는 요소를 갖추고 있듯이 (가)의 군자역시 백성들과 같은 일반인들은 도달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경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재의 독창성과 개성을 존중하여 그들을 자유공간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강제적 압력 없이 발휘해야한다고 주장한 (나)와는 달리 (가)는 군자는 중용의 도리를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행동양식에 대한 구속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가)와 (나)는 상반된다.

이처럼 천재의 소수성을 강조한 (나)와는 달리 (다)는 중간계급의 다수성과 이것이 바로 생활양식과 정치질서 등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다)와 (나)는 상반된 관점을 보인다. 특히 천재성보다는 보편성이나 평범함 성격이 강한 중간계급에 의한 통치는 (나)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범성은 인간사를 발전시킬 수 없는 고여 있는 웅덩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관점에서는 평범성이 아닌 독창성이나 특수성, 개성만이 인간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 다수의 평범성에 의한 강압은 결국 소수의 천재의 재능을 억압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천재를 부정적 인물로 낙인찍을 수 있고, 그 결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다)와 차별화된다.



[예시답안 2]

제시문 (가)와 (다)는 중용을 최선의 도덕적 삶과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중요한 생활방식,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한 나라의 통치 또한 중용을 지닌 사람이 해야한다는 점 역시 (가)와 (다)의 공통 의견이다. 하지만 두 제시문은 중용의 실현 방식과 주체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수결에 의한 정치가 강조된다. 이러한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은 (다)의 주장이다. 중간계급은 보통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다수를 이루기 쉽고 이것은 곧 현대사회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는 상층민과 하층민 사이에 존재하는 다수의 중간계급의 생활방식을 시민들의 행동양식에 가장 적합한 ‘중용’이라고 바라보았다. 즉, (다)에서 중용은 아무나 도달할 수 없는 경건하고도 신성한 경지가 아니라 보통 시민, 특히 중간계급의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가 이렇게 보통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우수성이나 재능을 중용으로 보지 않는데 비해 (가)는 중용을 군자, 성인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경지로 보았다. 중용이라는 단어 자체에 도덕과 천명이라는 의미를 내포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더욱 분명해진다.

(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와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하는 것 자체를 중용으로 보기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용이란 오직 군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지극한 고도의 경지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다)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이러한 중용의 도리를 갖춘 사람이 국가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따라 평등의 의미는 약해진다. 이것에서도 두 제시문의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다)는 중간계급을 통한 평등의 사회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문제 2] 제시문 (라)에 설명된 대표값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시문 (가), (나), (다)의 주장을 각각 논의하시오.

- 여기서는 대푯값의 특성을 확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제시문의 주장을 논의해야 한다. 여기서 논의의 의미는 연결일 수도 있고, 비판일 수도 있다. 다양한 방향에서 (라)의 특성을 이용하면 된다.
- 대푯값들은 공통적으로 집단의 속성을 드러내는 기능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평균값은 개별 요소의 총합을 통해 모든 요소를 포함한 값이라는 점에서 다른 대푯값과 차이가 있다. 평균값은 개별요소를 모두 고려하다 보니 집단의 속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 왜곡된 값을 표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중앙값은 철저하게 위치상의 고려로 양적 속성만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다른 집단 요소의 질적인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최빈값은 상대적 개념으로 집단의 속성을 대표하는 경우가 유동적이다. 전체 집단 속성가운데 최빈값의 점유율이 높을 수록 집단을 잘 대표하지만 점유율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집단의 속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
- 여기서 평균값은 (가)와 연결될 수 있다. 상대와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중용의 개념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가)에서 중용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각 개인의 실천에 대한 평가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중앙값은 (나)와 연결될 수 있다. 사회발전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천재가 위치상으로 그 사회를 이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성은 보통사람들의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드러낸다. 최빈값은 (다)와 연결된다. 안정적인 중간계급의 규모가 클수록 최선의 정치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다)에 드러나듯이 중간계급의 규모가 다른 계급보다 작다면 최선의 정치질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최빈값의 점유율과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예시답안]

제시문 (라)는 대푯값의 종류로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을 들이 이것의 특징과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세가지 대푯값 중 평균값의 두드러진 특성은 자료의 변수들 간의 균형을 유지시켜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가)의 주장과 연관이 있다. (가)에서는 중용을 갖춘 군자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데 여기서 군자란 사회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군자란 (라)의 표현을 빌려 ‘무계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간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며, 동시에 사회의 무계중심으로서 특별한 역할





을 한다는 측면에서 평균값은 (나)의 천재와 사회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의 표에서 종로구의 낮은 미세먼지 수준이 전반적인 대기 오염도를 낮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아주 적은 미세먼지농도를 갖은 지역이라는 뛰어난 천재의 존재가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순서를 고려했을 때 그 중간을 차지하는 것이 중앙값이므로 이것은 (다)의 주장과 관련된다. 상층민과 하층민의 가운데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중간계급이기 때문이다. 중앙값을 통해 자료의 대략적 구성을 알 수 있다는 점도 (다)의 주장을 잘 보충해준다. (다)는 중간계급을 통해 국가의 구조적 모습이나 질서양식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중간계급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의 입장은 중앙값이 최빈값과 비슷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빈값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서의 양상이나 사회가 어느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듯이 중간계급을 통한 사회의 흐름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